

분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영농기술교육은 인삼 재배농가의 경영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 3. 직파재배 vs. 이식재배 : 인삼의 경우 노동력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최근 직파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파재배의 경우 단기·다수확을 목표로 하는 재배 방식이지만, 이식재배에 비해 회색곰팡이병, 모잘록병, 줄기반점병 등이 많이 발생한다(원준연·조재성, 1999). 이와 관련하여 재배방식(직파재배, 이식재배)에 따라 농가의 기술효율성이 차이가 날 것이다.

이슈 4. 노지육묘 vs. 공정육묘 : 인삼 재배 시 묘삼은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노지 재배를 통한 묘삼을 획득하는 농가와와 공정육묘장을 통해 묘삼 획득하는 농가의 기술효율성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표 3-6-13> 인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

1. 작년(2015년) 귀하께서 생산하고 출하하신 인삼은 몇 년근 입니까? ()	
① 4년근 ② 5년근 ③ 6년근	
2. 작년(2015년) 귀하의 인삼 국내출하 물량과 해외수출 물량의 비중은?	
국내출하	() %
해외수출	() %
합 계	100%
3. 작년(2015년) 귀하의 인삼 국내출하 시 출하처별 비중은?	
출 하 처	비중
생산자단체(지역 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	() %
산지유통인	() %
브랜드업체(정관장, 한삼인)	() %
금산도매시장	() %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SSM 등)	() %
기타 :	() %
합 계	100%
4. 최근 5년(2011-2015) 동안 영농일지를 작성하였습니까? ()	
① 작성 안했음 ② 아주 가끔 작성 ③ 가끔 작성 ④ 주기적으로 작성	
4-1. 영농일지는 주로 누가 작성하였습니까? ()	
① 직접 작성 ② 농협 ③ 컨설팅업체 ④ 기타 :	
5. 최근 5년(2011-2015) 동안 각 유형별로 연 평균 몇 번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